광주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

은행연합회, '전국 은행권 발표회' 여성 운영업체 재무 컨설팅 등 2건 지방은행 중 유일…3년 연속 선정
고병일 은행장 "포용금융 역할 강화"

광주은행이 최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최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에서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돼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광주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발표회에서 '청년 창업 지원 교육'과 '여성 운영업체 맞춤형 재무 컨설팅' 등 총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나주시에서 철물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사장 A씨는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 지원 교육'을 통해 상권 분석, 세무 교육, 사업자 등록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받았다.

특히 간단한 업종 추가로 부가 수익까지 확보하는 등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매출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화장품 소매 및 뷰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확장 이전 비용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여성 운영업체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소개받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B대표는 컨설팅을 통해 정책자금을 활용한 운영자금 확보는 물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매출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2019년 11월 설립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금융종합상담'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 제공, 다양한 경영 컨설팅 제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혜택으로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해져 포용금융센터를 통한 운영자금을 확보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등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 북구와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특화산업과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롯데百 광주점, 크리스마스 '쿠키하우스'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 1층 베비에르 매장에서 독일식 과일 케이크인 '슈톨렌'과 수제 쿠키로 만든 크리스마스 한정판 '쿠키하우스'를 선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미리 만든 슈톨렌을 조금씩 잘라먹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 얇게 잘라 먹으면 더욱 풍미가 좋다. 수제쿠키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및 하우스 모양의 쿠키제품까지 연말 홈파티 분위기 연출에 좋은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도, '관광기업제품 팝업스토어' 운영

6~7일 서울 성수동…홍보·판로 지원
80여종 관광 제품·특산물 판매 진행

전남도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지역 관광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남도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로컬 관광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하는 '남도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전남의 전통과 문화를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낸 80여 종의 관광제품을 선보인다.

참가 업체들은 전통적 관광기념품과 함께 전남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전남의 청년 창업자가 개발한 섬 트레이, 티 코스터와 같은 감각적 기념품, 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한 특산물로 만든 고흥 유자샌드와 찹쌀 김부각 등 지역 매력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전시한다.

행사는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운영되며, 관광제품 전시,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특히 '남도 한입 체험' 시식 행사에서는 전남 대표 미식 상품을 작은 크기로 제공해 관람객이 한입에 맛보도록 해 풍성한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문객은 현장에서 전남의 고유한 관광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남도장터와 협업해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서울 성수동이라는 인기 장소에서 열리는 '남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전남도가 엄선한 지역 관광기업의 특색 있는 제품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가 전남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계엄 후폭풍' 코스피, 외인 매도 공세에 1%대 하락

원·달러 환율 1410.1원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대 하락 마감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0.10)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7% 급락 출발한 시작한 지수는 장중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여 장을 닫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홀로 4079억원을 순매도 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02억원과 169억원을 순매수 했다.

모든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철강금속(3.07%)과 음식료업(0.32%)을 제외하고 전기가스업(-9.94%), 보험(-4.54%), 건설업(-4.53%), 기계(-3.89%), 의료정밀(-3.56%), 유통업(-3.14%), 금융업(-3.07%), 증권(-2.77%), 운수창고(-2.09%), 화학(-2.02%)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93%(500원) 내린 5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3% 가까이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는 5만2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장 막판 낙폭을 다소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2.02%), 삼성바이오로직스(-0.62%), 현대차(-2.56%), 셀트리온(-2.09%), 삼성전자우(-0.55%) 등이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88%)와 기아(0.10%), 고려아연(8.37%)은 상승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며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금융, 유틸리티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이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0.80)보다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에 거래를 종료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억원과 148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66억원을 순매수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2.9원)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무안~일본 직항 개통 기념 여행업계 팸투어

해상케이블카·대흥사 등 명소 방문
상품 개발…해외 관광객 유치 박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무안국제공항과 일본을 잇는 데일리 정기노선 취항을 기념해 일본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전남의 관광 자원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4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팸투어는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일본 현지 여행업계에 직접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목포 연희네 슈퍼, 해상케이블카 △해남 대흥사, 다도체험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카페 월요 등 지역 대표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팸투어를 통해 일본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 전남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접근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관광업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무안~일본 데일리 정기노선 취항은 일본 관광객이 전남 관광지를 보다 쉽게 접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팸투어는 전남의 관광자원을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깊이 체험토록 함으로써, 향후 일본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일본 나리타(도쿄)·간사이(오사카) 정기노선은 지난 2일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오지현 기자

무협 광주전남본부, 지역 스타트업 기업설명회 코칭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일 IBK창공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전남대학교 링크3.0 사업단과 함께 '스타트업 글로벌 IR(기업설명회) 코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전남 소재 유망 바이오·모빌리티·IoT 스타트업 10개사 내외가 해외 투자 유치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멘토링의 결과물을 가지고 IR을 발표했다.

또 미국계 투자사인 '500글로벌'이 미국 시장 진출 기본기 강의가 열렸다.

기업들은 아마존웹서비스 글로벌 VC(벤처캐피탈) 이사, 월마트 산하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정기 이사, 모빌리티펀드 이사 등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 앞에서의 IR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업 중 광양에 소재한 공장 IT 솔루션 기업 '엑셀로'의 최영 이사는 "해외 진출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VC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이동원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의 한 축이 될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지속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